

182장 강물 같이 흐르는 기쁨

- 1 강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 2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 3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 4 생명 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 5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뵈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 후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1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 2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 3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 4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 후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11월 13일(수) 기도 담당 : 김동남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고흥석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182장 다 함 께

기 도 이철용 집사

성 경 봉 독 신명기 2:1~15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광야 여정의 결론, “선하신 여호와가 우리를 돌보셨다!”』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함 께

찬 송 286장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신명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11월 12일(화)	신 2:1-15	광야 여정의 결론, “선하신 여호와가 우리를 돌보셨다!”
11월 13일(수)	신 2:24-37	하나님 백성의 권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11월 14일(목)	신 3:12-22	작은 성취에서 큰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가?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11월 12일(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확증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기쁨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새문안교회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새문안의 모든 가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삼아 성령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11월 14일에 있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성실히 준비한 내용들이 잘 기억나게 하시며 평안함 속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궁핍과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음과 어둠의 문화가 복음의 빛으로 쫓겨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주님의 생명이 깃들게 하옵시며, 남과 북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화해와 평화로 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 교회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삶의 아픔을 호소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옵소서.

민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